

나는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수년간 체류를 하였고,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요즘처럼 '코스모폴리탄'체제가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이 상쇄되어 하나의 세계가 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흐름에서 맞춰 생명력이 넘치는 색으로 동서양의 융합된 오브제를 표현하려고 한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고등교육 이수 후 뉴욕의 SVA에서 순수미술 학위를 받았고, 스페인에서도 연수를 받았다. 한자문화권 안에 있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규칙과 규범을 몸에 익히며 살아왔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경험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유희를 위해 미술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형태와 색의 자유로운 유희를 특징으로 하는 추상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아 규범적 질서를 깬 실험을 꾸준히 하면서 중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작품세계를 7회에 걸친 개인전을 통해 보여주었다.

나는 줄곧 캔버스에 오일칼라로 추상이나 반구상작업을 해왔다. 동양의 중국과 터키의 풍경화에 영향을 받아 동양적인 풍경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해왔다. 또한 캔버스에 오일칼라를 사용한 추상과 반구상 그림을 꾸준히 그리며 전문적인 페인팅 실력을 키워왔다. 나는 최근들어 기억을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Sand Paper와 Masking Tape를 이용한 최근의 작업들이다. 이미 수많은 개인전을 통해 트레이닝된 오일칼라로 채색한 풍경에 Sand Paper로조심스럽게 색을 긁는다. Sand Paper로 긁는 행위를 통해 보다 Rawful한 태초의 근원색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Masking Tape를 붙여 기억의 파편들을 영토화 시킬 때 사용한다. 기억과 색의 자유로운 순환을 환기시키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두 테크닉 모두 우연성에 바탕을 둔 작업이지만 기억과 색의 자유로운 순환을 환기시키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나의 작품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체험을 근간으로 하여 기억을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테크닉을 실험하고 발전시켜 동서양을 융합하는 나만의 예술언어를 만들어갈 것이다.